



직지, 국회도 입성

청주시 주관 인쇄문화협회 후원, 의원회관에 직지홍보관 마련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찬란했던 인쇄문화를 알리는 '직지 홍보전'이 지난 5월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주시 주관,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천영세·손봉숙 의원 등

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한편 10여분 분량의 직지 홍보영상물을 상영했다.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제1회 직지상 시상식을 국회의원 등

에게 홍보하고 직지가 제작됐던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속활자를 한지에 인쇄하는 '활판체험행사'도 가졌다. 주최 측은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직지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회 직지홍보 특별전시회

○ 주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각 당 대표 ○ 주관: 청주시 ○ 기간: 2005. 5. 9 ~ 5. 11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열린 개막식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장, 이용희 국회행정지원위원장, 홍재형 강혜숙 이계진 손봉숙 오제세 정병국 천영세 국회의원, 한대수 청주시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출판문화협회장, 이상호 세계직지문

화협회부회장, 정종택 충청대학장, 이상령 유네스코위원회사무총장, 김병찬 직지홍보대사 등 정관계, 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축사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우리민족이 지닌 위대한 문화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국민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도 "직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 가을 독

일에서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직지문화엑스포 개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직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이에 앞서 "직지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임에도 그동안 정부지원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직지 세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 전시관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 홍우동 회장과 귀빈들. 3.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4. 직지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귀빈들. 5. 개막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귀빈들. 6. 이번 국회직지홍보특별전 행사를 주관한 강혜숙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7. 한대수 시장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8. 전시회장에서 차를 접대받고 있는 귀빈들. 9. 직지활자주조과정을 담은 디오라마. 10. 직지특별전의 진행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